

11월 18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1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지표-실적 악재 [다우: 8,273.58pt (-2.63%)	경제지표와 기업발 악재 행진이 계속되면서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가 심화되며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갔음. 뉴욕 지역 제조업 경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됐고, 타겟과 로우스 등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도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유럽 증시 하락 마감..R우려 증폭'	17일(현지시간) 유럽에 이어 일본 경제마저 7년만에 후퇴(recession) 국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 영국 산업연맹(CBI)은 영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1.7% 감소, 경제가 지난 1980년 이래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불안감을 증폭.
유가하락 [WTI: \$54.95 (-\$)2.09]	미국 주식시장의 약세와 글로벌 에너지 수요 둔화 전망이 유가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내년 원유 소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
씨티, 5만명 추가 감원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4위 은행인 씨티그룹은 이날 전체 직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5만명을 추가 감원, 비용을 20% 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최근 월가의 감원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임.
11월 뉴욕 제조업경기 '사상 최악'	미국 뉴욕 지역의 11월 제조업 경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되었음.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24.6에서 -25.4로 하락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래 사상 최저치.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망치인 -26은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이를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10월 산업생산 1.3%↑	허리케인 여파로 중단됐던 정유시설들의 가동이 재개된 영향에 힘입어 10월 산업생산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0.5%도 웃돈 수준임.
S&P, 헝가리 신용등급 'BBB'로 하향	헝가리 경제는 15년만에 후퇴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세계은행(WB)으로부터 200억유로(253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
中 진출 국내은행·기업 '자금난 숨통'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류 시유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와 류밍강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동성 지원을 약속. 류밍강 의장은 “한국을 비롯한 외자은행들의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제목	주요 내용
S&P, 헝가리 신용등급 'BBB'로 하향	헝가리 경제는 15년만에 후퇴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세계은행(WB)으로부터 200억유로(253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
中 진출 국내은행·기업 '자금난 숨통'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류 시유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와 류밍강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동성 지원을 약속. 류밍강 의장은 “한국을 비롯한 외자은행들의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하나지주 1조 회사채 발행	하나금융지주가 1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이 자금중 5,000억원 정도를 하나은행 유상증자에 사용할 것으로 보임. 하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보임
A급 이하 회사채 매매 기피	건설사의 부실채권 우려로 건설사 크레딧물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대우자동차판매의 ABCP 대금 결제지연이 발생했고, 신성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일부 채권형 펀드는 환매를 중단함. AA급 이상 초우량 회사채를 제외하고는 A급도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스프레드도 확대되는 모습.
건설사 대주단 자율협약 사실상 제한 없어	17일까지 받기로 했던 100대 건설사들의 대주단 자율협약 가입신청은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그 기한도 정해지지 않고, 제한도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건설사들은 대주단 가입이 건설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아직까지 대주단 가입을 미루고 있음.
한은, 9월 가계대출 소폭 둔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은 "9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서 지난 9월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8974억원(+0.8%) 증가한 506조 9973억원으로 집계.
한은 국고채 1조원 단순매입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을 안정과 RP 매각 대상증권 확충을 목적으로 국고채 1 조원을 단순 매입예정. 오는 19 일 오전 10 시부터 20 분간 국고채 1 조원에 대한 단순매입을 실시하며, 대상채권도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조성종목과 비조성종목으로 집중.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